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절경과 다양한 축제가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은 드넓은 백사장이 돋보이는 신안군 증도면 우전해수욕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cool~하게 즐기는 3色 피서

하나 청량함을 찾아-휴양림

고즈넉한 숲속 '웰빙샤워'

전남도 휴양림

지역	명칭	전화번호(061)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763-8615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772-2255
순천	낙안민속 자연휴양림	754-4400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430-3306
고흥	팔영산 휴양림	830-5557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852-4434
장성	방장산 자연휴양림	394-5523
장흥	전남진 장흥편백숲 우드랜드	860-0402
	천관산 자연휴양림	867-6974
	유치 자연휴양림	863-6350
해남	가학산 자연휴양림	535-4812
	백이산 자연휴양림	374-1493
화순	한천 휴양림	370-1329
	안양산 휴양림	373-2065

"'숲'이라고 모국어로 발음하면 입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인다. 자음 'ㅅ'의 날카로움과 'ㅡ'모음의 깊이와 부딪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바람이다—"

소설가 김훈은 에세이집 '자전거 여행'에서 '숲'을 이렇게 묘사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콘크리트 '숲'에서 한발짝 벗어나 초록빛깔 바다가 일렴이는 천연의 '숲'에 뛰어들어 보자.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한 통나무집, 하늘로 쭉쭉 뻗은 편백나무 숲과 계곡 물소리, 산새소리. 휴양림은 삼림욕장을 비롯해 산속을 거닐 수 있는 산책길, 어린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삼림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풍과 땀흡수가 잘되는 간편한 복장을 갖추고 숲속을 거닐며 심호흡을 해보자. 편백나무숲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남지역에는 통나무집 등 숙박시설을 갖춘 14개소의 휴양림이 있다. 광주에서 가까운 화순 안양산, 백아산, 한천휴양림을 비롯해 장성 방장산, 장흥 우드랜드 등 다채롭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길이 일품인 장성 축령산에서는 다음달 7~9일 3일간 '산소축제'가 열린다.

29일 문을 연 장흥 '우드랜드'(www.jhwoodland.co.kr)는 통나무주택 5동, 황토주택 3동, 한옥 4동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목공예 체험관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무 필통과 목걸이등 목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휴양림은 산속에 위치한 관계로 자연보호와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으로 ▲야생동·식물을 잡거나 훼손하는 행동 삼가기 ▲타 휴양객과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란 피우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야생동물을 일정거리 떨어져서 관람하기 ▲지정된 등산로에서 벗어나 걷지말기 ▲애완동물 동반 삼가기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이 운영하는 '숲으로의 초대, 산에 ON' 홈페이지(san.go.kr)에서 전국에 산재한 국영·공영·개인운영 휴양림 정보와 예약을 할 수 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에서도 낙안민속 자연휴양림, 방장산 자연휴양림, 천관산 자연휴양림 등 전국 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둘 흥겨움을 찾아-테마피서

기차타고… 은어잡고… 추억만들기

〉〉 봉화은어축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봉화로의 동심여행이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경상북도 봉화에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제 11회 봉화은어축제가 열린다. '오세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봉화로!'라는 주제로 9일간 개최되는 이번 은어축제에는 은어잡이, 야간 고기잡이, 뗏목·수상 자전거체험 등 시원한 물놀이가 준비된다. 숯불의 그윽한 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은어구이는 또 다른 즐거움.

은어잡이체험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매일 2회 운영되며 주말 관광객을 위해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1회 더 운영된다. 내성천 조명 아래 야간 고기잡이 체험도 할 수 있다. 수중달리기, 퀴즈왕대회 등의 행사와 청정 농·특산물과 토속음식 전시판매장과 은어 먹거리 골목도 운영된다.

은어(반두·맨손·야간)잡이체험 입장료 : 일반인 1만원, 유치원/초·중학생 8천원 (입장료 중 상품권(3천원) 포함, 만4세이하 입장불가)

http://www.bonghwa.go.kr/potal/euneo

〉〉 태백 쿨 시네마 페스티벌

한 여름 더위를 날려줄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이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시원한 산바람이 가득한 강원도 태백산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 및 태백시내 일원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주말과 휴일인 8월 1·2일과 7·8일 태백시내 도심인 중앙로 일대에서는 한낮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물놀이행사가 열린다. 양동이 피포먼스, 물세례 피포먼스, 물총싸움 놀이 등의 물놀이로 한 낮 열기를 달랜 관광객들은 야외 영화로 여름 밤을 보낼 수 있다.

매일 밤 8시 당골광장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은 살아있다 2', '위낭소리', '거북이 달린다'등의 영화가 여름밤을 수놓는다. 통기타, 밸리댄스, 록 밴드 공연도 준비됐다.

태백시 고원자생식물원에서는 고운 야생화가 장관을 연출한다. 20만평이 넘는 축제의 장에 300여종의 야생화가 고운 자태를 뽐내며 여름이 만들어낸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여준다. 해바라기 축제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다.

http://festival.taebaek.go.kr

〉〉 정동진 기차여행

기차를 타고 떠나는 무박 2일의 정동진 기차여행.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는 오는 8월14일까지 매주 금요일 광주·전남 여름철 피서객들을 위해 동해안으로 떠나는 임시열차를 운행한다. 오는 31일, 8월 7·14일 저녁 7시 정동진으로 향하는 무궁화호가 광주역을 출발한다. 동해를 향해 밤새 달린 기차는 다음날 새벽 3시 38분 정동진역에 사람들을 내려놓는다. 관광객들은 최고의 일출 명소로 꼽히는 정동진역 앞바다에서 일출을 맞이한 뒤 모래시계공원, 조각공원, 통일공원 등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동진을 출발한 기차는 밤 10시39분 광주역에 도착, 1박 2일의 일정을 마감한다.

만18세이상~만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여름 열차 여행도 즐길 수 있다. 8월 31일까지 내일로 티켓을 구매하는 청소년은 전 노선 새마을 자유석, 입석, 무궁화호 입석, 통근열차 자유석을 연속 7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5만4천700원.

문의 :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 영업팀 (062-605-2174)

〉〉 여름 레포츠 래프팅

계곡이나 강의 물살을 타고내려가며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래프팅은 여름에만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영월의 동강, 침암의 한탄강, 인제 내린천 등의 국내 유명한 래프팅 코스. 아름다운 강과 산골짜기를 간직한 전라도에서도 물살을 헤쳐나가는 래프팅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전라남도 구례와 전라북도 무주에서 물살을 가르며 한 여름 무더위를 잊을 수 있다.

전라남도 구례 섬진강의 간전교에서 출발하는 섬진강래프팅은 원송계곡, 석주관 칠의사 전적지, 한수천, 백운천, 피아골나뭇터로의 숨가쁜 코스가 이어진다.

전북 무주의 유평잠수교에서 부남체육공원과 한티유원지까지 이어지는 금강의 물길도 만나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속에서 즐기는 모험 가득한 여름 레포츠 래프팅은 빗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섬진강 래프팅 : http://www.sjrefting.com, 금강래프팅 : http://www.kgrafting.com

〉〉 여수 야경 유람선 투어

선상에서 맞보는 여름밤의 운치가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매주 토요일에만 운행되던 '여수 야경 유람선 투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16일까지 매일 1차례 운항된다. 야간에 유람선을 타고 여수 야경을 구경하는 여수여행의 백미 선상 야경 투어는 오동도를 돌아 해양공원, 진남관 앞, 장군도, 돌산대교, 국동 어항단지를 거쳐 오동도까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되며,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통기타, 색스폰, 마술공연, 선상 노래방, 연인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돼 휴가철을 맞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게 된다. 여수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유람선은 매일 저녁 8시 오동도 음악 분수대 앞에서 출발한다. 9·10월에는 저녁 7시 30분에 출발한다.

요금 : 성인 1만원, 어린이(만12세 이하) 5천원.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 10% 할인.

문의 : 여수항 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 (061-690-7532)

〉〉 진도해변축제

올 여름 진도는 축제의 섬. 신비의 바닷길 진도 가계 해변에서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전남카누협회 위탁 운영으로 오는 8월 10일까지 가계해수욕장에서는 서핑, 래프팅 무료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8월 1일과 8일에는 해변축제가 열린다. 8월 1일 저녁 8시 가계해수욕장에서는 '진도해변축제'가 열려 해변 노래자랑과 각종 문화공연 행사 등이 진행된다.

국제 크리스천 음악 축제인 '2009 진도국제 씨+뮤직페스티벌'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다. 8월8일 시원한 해송으로 둘러싸인 관매도 해수욕장에서도 '관매도 해변 축제'가 개최되는 등 진도의 해변에는 흥겨운 여름이 펼쳐진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몽골텐트 50동, 개인 텐트 시설 100여동, 민박 등 숙박시설이 준비돼 있고 주차장과 샤워시설 등도 대폭 정비했다.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061-540-3125)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봉화은어축제

셋 설레임을 찾아-오토캠핑

밤하늘 별헤며 동화속으로

전남지역 오토캠핑장

지역	명칭	전화번호(061)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797-2655
순천	낙안민속 자연휴양림	754-4400
고흥	팔영산 자연휴양림	830-5453
곡성	섬진강 오토캠핑장	362-8466
구례	연곡사 자동차야영장	783-9100
	황전 자동차야영장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852-4434
장성	가인 야영장	392-7288
장흥	유치 자연휴양림	863-6350
	천관산 자연휴양림	867-6974
해남	땅끝 오토 캠핑리조트	534-0830
	송촌 해수욕장	533-3181
	가학산 자연휴양림	535-4812

첫 지리산종주에 나섰던 80년대 중반 대학시절, 배낭 위에 묵직하게 얹혀진 텐트는 '애물단지'이자 '괴로움' 그 자체였다. 바리바리 꾸린 배낭무게마저 힘겨운 터라 동행한 친구들과 번갈아가며 짊어지곤 했다. 당시 여러 개의 알루미늄 파이프 뼈대를 까워 맞춰야 했던 텐트는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없지만 무지막지하게 무거웠던 기억이다. 그러나 힘겨운 산행길에 '무게'를 더했던 텐트는 어렵게 도착한 야영장에서는 안락한 잠자리로 변신했다. 늦은 식사 후 바라보는 밤하늘엔 깨알 같은 별들이 텐트 위로 쏟아졌다.

이제 자동차가 2.91명당 한 대꼴로 보급될 정도로 시대가, 문화가 변했다. 지리산 능선길을 걸으며 절대 야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자연속에서 밤을 지새는 야영의 묘미를 맛보고 싶다면? 답은 '오토캠핑'(auto camping)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오토캠핑은 자동차(auto)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캠핑(camping)이 결합된 외래어이다.

집 떠나 잠자고 밥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해 보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텐트. 여행하는 숫자에 따라 다소 여유있는 편이 짐 정리하는데 좋다. 타프(tarpau=그늘막), 침낭·매트리스 등 침구류, 버너·코펠 등 취사도구, 기타 야전삽, 랜턴 등 챙겨야 할 것은 많다. 캠핑장이 산속이나 오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진통제, 소화제 등 상비약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당장 텐트가 없더라도 전남 각 지역의 유명 해수욕장에서 몽골텐트를 임대할 수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소·중형 텐트를 대여해 준다. 해남 땅끝에서는 군이 직접 캠핑카(10대)를 운영한다.

◇어디가 좋을까? = 전남 지역에는 해남 땅끝을 비롯해 장성, 순천, 장흥, 곡성 등 10여개소에 오토캠핑장이 마련돼 있다. 오토캠핑장은 주차장, 식수대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장료와 주차료, 야영장,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유료이다. 넓찍한 야영장중에서도 취사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가까우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차량소음과 불빛이 적은 곳이 '명당'이다.

◇오토캠핑 카페 = 오토캠핑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와 카페가 개설돼 있다. 오토캠핑(autocamping.co.kr)을 비롯해 캠프랜드(cafe.daum.net/camperland), 캠핑&바베큐(cafe.naver.com/campingnbbq) 등에서 동호인들의 장비 사용후기와 캠핑명소 추천, 캠핑요리, 여행후기 등 알찬 캠핑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